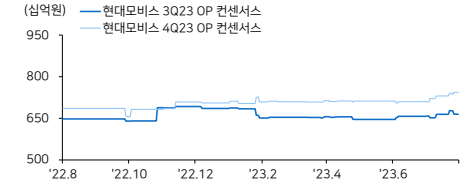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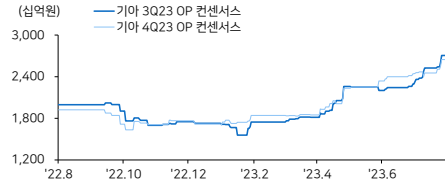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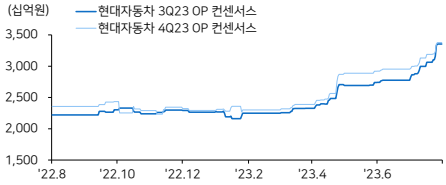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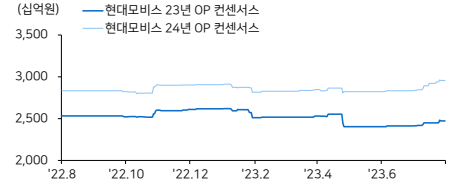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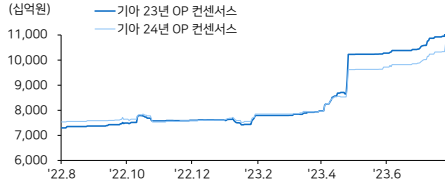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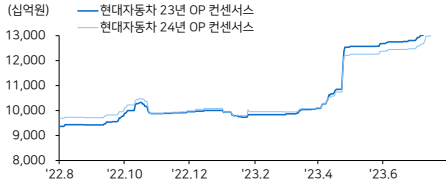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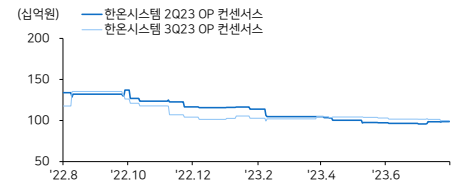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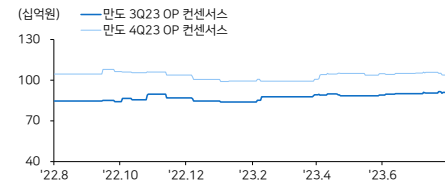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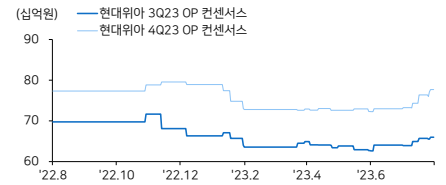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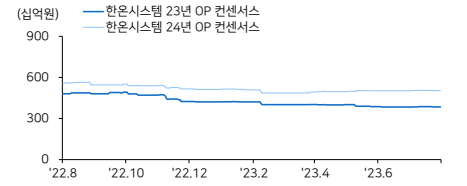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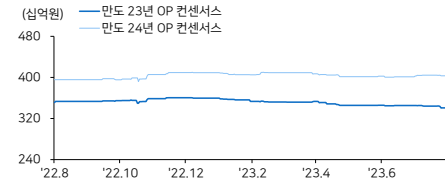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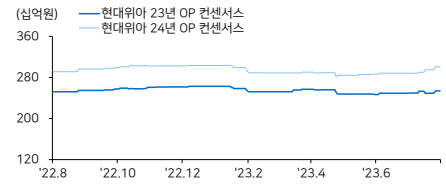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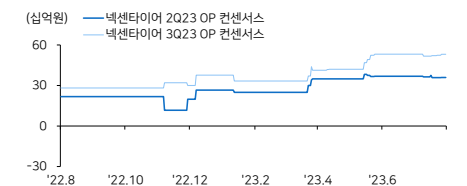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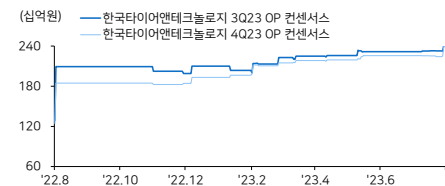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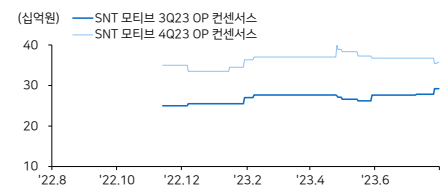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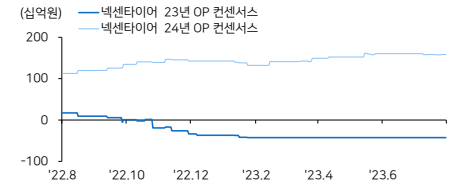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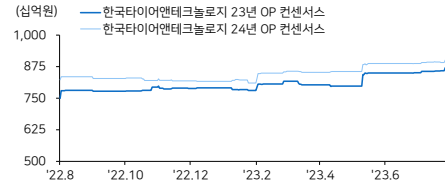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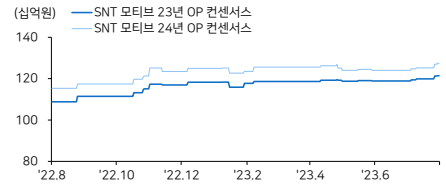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N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의 주요 뉴스

Tesla Increases Purchases of Lithium from Yahua (Tesmanian)

Tesla는 중국 Yahua와의 기존 리튬 공급 계약을 2030년까지 5년 더 연장하고 구매량을 크게 증가시킬 예정이다. 계약에 따라 2023년 8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총 20.7만~30.1만 톤의 배터리 수산화 리튬을 구매할 계획이다
<https://han.gl/KBPANT>

Xpeng expects to bring its EVs to dozens of countries next year, CEO says (CnEVPost)

He Xiaopeng CEO는 CGTN과의 인터뷰에서 내년엔 선진국을 중심으로 수십 개 국가에 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 이스라엘을 넘어 주력 모델인 P7, G9 및 G6의 글로벌 판로를 확보하고 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것이라 설명했다
<https://han.gl/FngUoU>

구글 완전자율주행차 웨이모,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시범운영 개시 (연합뉴스)

웨이모는 올 가을부터 미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차량호출 서비스를 위한 공식적인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오스틴은 애리조나주 피닉스와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에 이어 시범 운영을 하는 네 번째 주요 도시가 될 전망이다
<https://han.gl/uAbpD5>

국내 전기차, 값싼 'LFP배터리' 탑재 늘어날듯 (동아일보)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출시된 테슬라의 중국산 모델Y를 시작으로 국내에 LFP 배터리 전기차가 꾸준히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LFP 배터리를 보급형 전기차에 사용해 소비자층을 확장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됨
<https://han.gl/qoFGDL>

7월 수입차 판매량 줄어...개소세 인하 종료 (ZDNet)

KAIDA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 승용차 신규등록 대수가 작년 같은 달(2만1천423대)보다 1.3% 감소한 2만1천138대로 집계됐다.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와 일부 브랜드의 물량 부족 등으로 7월 수입차 신규 등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https://han.gl/CJWHZM>

현대차그룹, 테슬라에 642억원 투자... "자율주행 고삐 당긴다" (Bloter)

현대차그룹은 AI 반도체 스타트업 Tenstorrent에 5000만 달러(약 642억원)를 투자했다고 발표했다. 자율주행 및 SDV로 진화하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서 최적화된 반도체 역량을 다지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됨
<https://han.gl/oushYY>

GM's Cruise says it's reached the robotaxi industry's first union agreements (Reuters)

GM의 로보택시 사업부인 크루즈는 무인 자동차 업계 최초로 노동조합과 계약을 체결했다. Reuters는 역사적으로 기술 발전에 대해 경계심을 가지던 노조와 로보택시 회사가 대립해 온 상황에 중요한 이정표(Milestone)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https://han.gl/OvtdDm>

닛산바루 "2030년까지 전기차 비율 50%로 ↑ 13조6000억원 투자" (뉴시스)

일본 스바루는 2030년까지 전 세계에 판매하고 있는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 비율을 5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스바루의 경영자원을 전기차에 집중시키기 위해 1조5000억엔(약 13조6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https://han.gl/ocEwtf>

현대차·기아, 미국서 '화재위험' 9만1천대 리콜 (연합뉴스)

Reuters는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에서 화재위험으로 신형 차량 9만1천여대를 리콜한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ISG 오일 펌프의 전동식 제어기에 손상된 전자 부품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어 과열을 유발할 수 있다고 리콜 사유를 설명했다
<https://han.gl/KPMvhb>